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7강 율법과 치유

이스라엘의 믿음

출애굽기 14장에는 아웨의 명령이 대화체(4절 이하)로 등장하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고 탄원하는 양식(보이짜아쿠10절)이 서술체(1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다. 그와 달리 출애굽기 15장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독특하다.

출애굽기 15:1. 21에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찬미(쉬르)의 형태로 묘사되었는데, 출애굽 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된 이야기에 대한 반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애굽기 15장의 찬미는 출애굽 사건과도 연결되는 -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갈대(습) 바다 구원 사건을 마무리하는 - 단락으로 보인다.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믿었다’(출 14:31).

출애굽기 15장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탄 자를 바다로 던지셨도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이 된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으니 말이다. 이러한 찬양은 21절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금식을 해보았는가?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수일을 버틸 수가 있다. 하지만 금식하는 사람도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버티지 못한다. 때로 물은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출애굽 하여 찌는 듯 한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 없다. 적대국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광야에는 자연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출애굽기 15:23-26

광야에서 첫 사건

출애굽기 15:22은 이스라엘이 물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한다. 겨우 물을 발견했지만, 그것은 써서 마실 수가 없다. 23절에는 '지명'인 동시에 '쓰다'를 의미하는 마라가 3회 등장할 정도로 물이 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Bible Works

광야의 쓴 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했다(출 15:24). 그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다'는 것을 보았다. 출애굽 한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낸다. 출애굽기 15:24는 광야에서 보여주는 첫 장면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보여줄 모든 사건을 이 한 장면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갈대 바다를 건넌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 경험을 근거로 그들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직면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한다.

결국 그들이 믿는 믿음이란 상황에 근거한 것인가? 잘되면 믿고, 잘못되는 믿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출애굽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험에서 말씀으로

쓴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없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다. 야웨는 모세에게 무언가를 가리켰고 (보요레후 예호바),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다(출 15:25a). 본래 문제가 되었던 '쓴 물'로 인한 고통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결되지 않는다.

돌연 출애굽기 15:25b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삼 삼 로 호크 우미쉬 파트)라고 증언한다. 이것은 주제와 용어적으로 25a절과 구분된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23-25a는 율법 제정과 무관하며, 율법과 관련된 주제는 본래 출애굽기 19장 이후, 즉 '시내 산'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출 19:12). 즉, 출애굽기 15:25b는 이미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등장하는 율법 기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라의 샘이라 불리는 곳

고대 세계의 치유

고대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치유가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50:2에는 '의사'라는 직업을 설명한다. 심지어는 『공동번역』에 따르면 후대에 의사는 존경을 받는 직업이기도 했다.

의사는 아니지만 제사장과 선지자 역시 전통적으로 의술과 결부된 자들로 이해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신의 신탁을 중재할 수 있는 자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신탁을 듣고 난 이후에 '근심하는 얼굴이 없었다'고 성서는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치유의 주체로 등장한다. 신명기 32:39는 하나님을 생사를 주관하며, 상하게도 낮게도 하시는 분으로 서술한다.

출애굽기 15:23-26의 독특성

그러한 점에서 출애굽기 15:23-26은 대단히 눈에 띄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15:26에서, 치유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치유’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 그것을 위한 조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본문은 그것을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언급한다. 환언하면 출애굽기 15:26은 치유를 위해 토라 순종을 진술한다. 치유를 위해 토라 순종은 필수가 되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25와 비교할 때 더욱 보증되며 부각된다. 먼저 이러한 이해는 출애굽기 15:25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된다. 여기에는 "가리키시니"라는 '봐요레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본래 "아라를 어미로 취하는 히브리어로서,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토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5절은 이미 토라를 암시하고 있다.

25a절에서는 물이 단맛으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인 것처럼 서술되었지만, 그 이후에 야웨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였다(25b). 이것과 비교할 때 출애굽기 15:26은 조건문을 통하여 질병 치유를 율법 순종과 결부시킨다. 따라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율법을 불순종한 결과이며, 치료는 율법 순종의 결과라는 도식이 성립된다(키 아니 예호봐 로프에카; 참조. 신 28). 환언 하면, 출애굽기 15:26은 율법 제정을 넘어서 질병 치유와 율법과 연결시킴으로써, 토라 준수를 강조하는 본문이다.

출애굽기 15:25는 첫 번째 시험을 언급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에게 이것은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시적 현상, 초자연적 현상에 치우쳐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붙들고 살아가길 즐겨 한다. 성경은 가시적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토라로 대표되는 ‘말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